

# 2030년까지 최대 98조 공급... 국민성장펀드로 자금 물꼬



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경기 용인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강평을 하고 있다. ② 지난 2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③ 지난 6월 12일 서울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④ 지난 3월 29일 인천 송도 '신한스퀘어브릿지 인천'에서 진행된 오픈이노베이션 11기 및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3기 선발 기업 발대식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 ② 신한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두 축으로 총 11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금리대출과 맞춤형 여신을 제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17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그룹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본격화하고 있다.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을 늘리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 ◆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구축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어 12월에는 생산적 금융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출범  
9개 자회사와 사업 발굴 등 협업  
발행어음 기반 투자·대출 확대

국민성장펀드 10조, 대출 75조  
국가 전략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취약계층에 최대 17조 공급  
금융소외 고객 '같이성장' 모토

추진단은 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대출·재무건전성·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는 9개 자회사 총괄 그룹장과 협업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별 금융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주요 자회사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 설계부터 운영,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중·고등학생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확대한다. 신한캐피탈도 상품·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투자 부문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 2030년까지 최대 98조 공급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그룹 자체 투자·대출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서울 세종대로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을 투자하고,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성한다. 초·중·고등학생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기 투자부터 코스닥 상장 및 기업공개(Pre-IPO) 단계까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지원에는 72조~75조원을 투입한다. 은행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생 성장지원 추진단'을 운영해 부동산 관련 자금 비중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약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와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 취약계층에 최대 17조 포용금융

신한금융은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도 공급한다.

포용적 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신한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자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상생금융 확대에 나선다.

우선 금융소외 고객을 대상으로는 '같이성장'을 모토로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용상품을 지원한다. 신한미소금융재단에는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정책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와 저금리 상품 대환을 지원하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여신을 신한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 브링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연체 차주는 '기업성공프로그램'과 '기업재도약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이와 함께 '그냥드림' 사업 규모를 기존 4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지역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도 도입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